# 108게송으로 전해듣는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붓다! 기쁨의 노래

월호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을 담은 책을 경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전은 처음의 형태가 아니었다. 부처님 입멸한 후 승가에서 합송(合誦)하며 전해온 부처님 가르침은 게송, 즉 노래 형태였다. 승가의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암송하며 구전으로 전승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님 입멸 후 몇 백 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게송이 산문이나 설명조의 긴 문장보다 기억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암송하며 구전으로 기억한 원초적 형태에 더 가깝다.

월호 스님<오른쪽 사진>은 부처님 생애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과 부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출가수행자 및 재가 신도들의 일화를 소재로 한 108가지 게송을 한데 모아 〈붓다, 기쁨의 노래〉란 제목으로 책을 엮었다. 이 게송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널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월호 스님은 책을 엮는 것에 그치지 않고, 4개월간 무료 강의를 통해 게송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그 뒤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강의는 BBS불교 TV에서 〈월호 스님의 행불 아카데미〉 코너를 통해 지금도 다시 접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강의 녹취를 풀어 쉽게 다듬고, 각 게송에 얽힌 일화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 책은 〈쌍윳따 니까야〉 〈디가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그리고 법구경의 빨리어 주석서인 〈담마빠다 아타까타〉와 〈법구경〉 등에서 선별한 아름다운 게송들과 월호 스님이 직접 지은 게송 등 총 176개 게송을 108가지 일화와 함께 소개한다.

이 108 일화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서부터 탄생, 출가, 성도, 전도선언, 초전법륜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자와 재가신도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들뿐만 아니라 남성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는 등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는 이들과 관련된 일화들도 소개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책이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일화나 게송만을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의 게송,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더라도, 나고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 설명한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윤회를 거듭하는 원인은, 또 그 굴레서 벗어나 생사 해탈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월호 스님은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나고 죽음을 거듭 되풀이하는 근본 원인은 무아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며, 생사서 벗어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네 가지 대면관찰임을 분명히 설한다.

행불선원 선원장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을 상담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전법의 길을 걸어온 행불사문 월호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 해탈의 기쁨을 느끼는 방법을 명쾌히 이 책에서 강설한다.

"라조 하라낭(때를 닦자)!"이라는 단 한 구절의 게송만으로 아라한이 된 쭐라빤타까 스님처럼 우리도 이 책에 있는 게송 단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실천하면 깨달음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월호 스님은 우리에게 잔잔히 들려준다.

### 책속의 밑줄 긋기

▲무아법에 밝으려면 네 가지로 관찰하세. 그럼 네 가지가 무엇인가?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면해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 하세.**

이 게송은 앞의 게송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대면관찰(四念處)의 수행입니다. 이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수행법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라지지요. 운전하다가 성질이 나면 '이런, 달마(별명)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달마(達磨)'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말합니다. 달마가 원래 법(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면 '달마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기분이 나빠지면 '달마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사꺄족들은 교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발사 우빨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사꺄족들의 교만이 제거될 것입니다" 〈율장〉「소품」중에서

백팔배나 삼천배 등 절을 통해 하심이 좀 되면 일심(一心), 즉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합니다. 기도가 대표적인 일심 공부입니다. 천수다라니나 〈화엄경 약찬게〉 등을 앉으나 서나 계속 독송합니다. 일심이 되면 무심(無心), 곧 한 마음조차 사라진 상태인 무분별심을 공부합니다. 참선이 대표적인 무심 공부입니다. '아, 이 몸과 마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무심을 맛보고 나서는 발심(發心), 즉 전법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공부는 하심에서 시작해 일심, 무심, 발심으로 이르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인 일심이나 무심 혹은 발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마음공부하려는 분들은 먼저 하심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 禪과 茶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차선철학' 안내서



차와 선의 세계

정순일 지음/골든북스 펴냄/2만2천원

"목숨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커피를 마실까" 얼핏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커피 한잔과 같은 무게로 견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유명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베르트 카뮈(1913~1960)가 한 말이다. 삶이란 매순간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라는, 그래서 순간순간이 결단의 연속임을 암시하는 실존주의 거장다운 말이다. 카뮈가 말하는 커피는 삶 전체와 비중이 균등하다. 한 잔의 커피와 인간 생애를 동일시하는 점은 오히려 철학적이기보다 곱씹어 보면 선사다운 사유와 기지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말을 카뮈보다 한시대 앞서 살다간 초의선사(1786~1866)가 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상상하면 '참선을 해야하나, 아니면 차를 마셔야 하나' 이렇게 말했을게 틀림없다"며 "그것은 차의 무게와 선의 중량이 같다는 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이어 저자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을 붙인다. "차의 성분이란게 별 것이 아니다. 물 99.99%에다가 약간의 색소와 카페인, 그리고 미량의 카테킨과 비타민, 거기에 더 따진다면 몇가지 미네랄 등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한 인간의 삶과 비교될 만큼 엄청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찻잎으로 조합되고, 한 잔의 차로 우리 눈앞에 현전했을 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대자연의 신비이며, 그것을 눈치챈 학자들이 차(茶)에 삶을 견줄만한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불가에서 말하는 '차선일미' '다선일미' '선다일여'의 경지인 것이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차선철학에 대한 친절한 안내이다. 예로부터 차와 관계를 갖는 사람 대부분이 차도의 정신을 논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차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차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존재했다. 그러다보니 차는 사람들에게 마시는 것으로서의 음료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정신을 닮은 동반자로 수용되었다. 특히 불교에서 선의 정신과 결합했는데, 차를 마시는 것과 선 하는 것을 동일 차원서 간주함으로써 마침내 차선일미 사상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차선일미가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상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 책은 차와 선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다양한 접근 한다. 예컨대 조주선사를 비롯한 선사들의 선문답 속에서 차는 어떤 위치를 차지 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차의 정신세계를 밝힌다. 이 책 내용은 원래 강연을 위해 준비됐지만 내용상 균형을 위해 학술 논문도 적절히 편집했다. 그래서 어떤 면은 학술적인 분위기도 다소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선문답을 재미있게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각 강연은 원래 하나의 주제아래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차선철학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차와 선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과히 넘어서는 것은 아니어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저자가 지향하는 '차선철학'의 세계를 일부나마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형식은 하나의 주제를 맥락에 따라 짧게 잘라 편집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글을 무작위로 한 꼭지씩 골라서 읽어도 좋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차와 선을 함께 즐기는 길은 무엇인가? 한편 이 책에서는 차의 정신세계를 육우의 〈차경〉에서부터 찾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후 불교와 도교를 넘나들면서 차의 정신세계와 통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했다.

또한 불교 선(禪)의 발생과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선을 향유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다. 예컨대 조주선사의 '차나 마시게'라는 화두를 다양하게 분석해 선사들의 차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조명했다.

김주일 기자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종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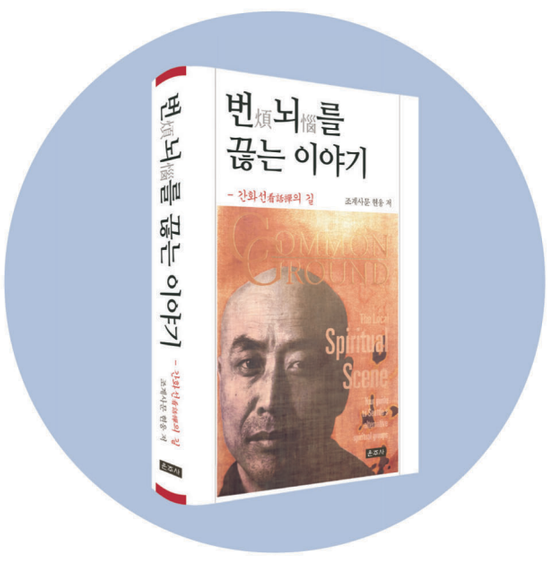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